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10주 베스트셀러 1위 / 교보문고 종교서적 연속 6주 베스트셀러 1위

21세기 정법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불교경전!

왜곡되고 종파화된 기존 불교의 한계를 타파하고 세계불교의 방향성을 제시하다
동서고금 종교·철학사상과 현대 첨단과학을 아우르는 최고의 진리를 사자후하다

1. 부처님께서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셨다.
2. 가섭존자와 아난존자가 한국에서 불과를 이루셨다.
3. 불교중흥의 신불교 정법시대가 열렸다.
4. 우주만물과 인간 탄생의 비밀을 밝히다.
5. 영혼체가 인간의 본체이고 윤회의 주체다.
6. 2000년간의 무아 - 윤회주체 논쟁을 마무리짓다.
7. 칭명염불만이 보살·붓다 될 수 있는 정통수행법이다.
8. 한국은 국운융창기를 맞고 세계는 보다 평화로워진다.

1. 부처님께서 불신(佛身)으로 한국 땅에 오셨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는 제1성으로 “부처님은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영산 당시 가섭·아난 두 예제자를 붓다 만들어 데려가시기 위해 또 말세의 왜곡된 불교를 쇠신하고 신불교 정법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사바세계 한국 땅에 오셨음을 밝힙니다.

현지사는 부처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현지궁’입니다. 춘천 본사의 큰 법당 벽장 사이 10cm 남짓한 공간에 서울시보다 더 넓은 궁을 짓고 주(住)하고 계시는 부처님은 매일 새벽 가섭·아난 두 아들이 올리는 공양을 드시고 법계의 중요한 일에 대해 회의를 주재하시고 보고도 받으십니다. 천녀정도의 천녀들이 가져다주는 차도 마십니다. 삼계지존 다보부처님과 약사부처님, 아미타부처님, 보명부처님 등 오여래 부처님과 문수·보현·관음·지장보살 등 보살행하시는 4대 부처님을 포함하여 기라성 같은 열 여섯 부처님들께서 함께 와 계십니다.



2011년 4월 초파일 현지사 전경

2. 가섭존자와 아난존자가 한국에서 불과(佛果)를 이루셨다

영산 당시 부처님의 예제자 가섭 광명만덕 큰스님과 아난 자재 만현 큰스님은 금생에 한국 땅에 태어나 부처님의 지도로 각각 광명불과 자재통왕불이 되었습니다. 광명불은 불세존 석가모니부처님의 법의 상속자로서 좌우보처가 명상불(수보리존자)과 화광불(사리불존자)입니다. 자재통왕불은 문수보살 범왕자로서 좌우보처는 분화보살의 지도자인 상행보살과 정행보살입니다. 이는 《법화경》의 부처님 수기 내용이 현실화 된 것입니다. 부처님 이후 수보리존자가 중국에서 사리불존자가 한국에서 붓다가 되었지만, 이분들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고 조용히 반연만에 드셨습니다.

불과를 이루었다는 것은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증득했다는 것을 넘어서 대적점삼매 속에서 무량광으로 정화된 네 개의 영혼체가 무량광의 원만보신과 완전히 결합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는 부처님의 범등을 이어받은 가섭 광명불과 아난 자재통왕불이 불교중흥의 가치를 높이 들고, 정법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개창한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말합니다. 영산불교는 불보살 세계의 실재를 증거하고 보살·붓다 되는 가르침이 중심이 되는 불교입니다. 그 핵심교설은 부처님 실존론-삼신설, 우리의 본체인 영혼체론-영혼체윤회론, 칭명염불 수행론, 생기론 등입니다. 《열반경》에서 말하는 만자의 가르침 중에서도 완성된 만자(滿字)의 가르침이고, 《열반경》의 이자삼점의 비밀장이 실현되는 부처님의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는 신불교를 여는 범부서로서 기존 대승경전의 내용을 검증하면서 무아론 등 기존 불교계의 잘못된 교리 해석을 바로 잡고, 불신론과 영혼체론 등 기존 경전에서 담지 못했거나 미비했던 내용을 완벽하게 보완하여 부

합니다.

무엇보다도 압권인 것은 인간영혼체의 생성원리와 인간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의 비밀을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밝힌 데 있습니다. 특히 공에 내재된 인간중자(空我子)가 드러나 1·2·3번 영체로 전개되는 과정은 지금까지 동서고금의 어떤 종교·철학에서도 넘보지 못한 가장 차원 높은 교설입니다

5. 영혼체가 인간의 본체이고 윤회의 주체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에서는 불교의 대·소승 어느 경전에도 없던 영혼체론을 새로운 불교교설로 정립하였습니다. 인간은 네 개의 영체와 하나의 육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번 영체가 인간의 본체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1·2·3번 영체는 영원히 멸도하지 않는 나의 주인공(主人空)으로서 윤회의 주체인 동시에 해탈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선악의 업을 지으면 모두 영혼체에 저장됩니다. 유식학자들이 말하는 제7식과 제8식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모두 영혼체의 기능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 교학상 또 하나의 커다란 변혁입니다.

이 책에서는 또 영혼체가 가는 사후세계가 실재함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어서 저승에 들지 못해 가는 무주 고통의 세계인 중음계, 여섯 윤회세계-지옥·아귀·축생·인간·아수라·천상, 세 해탈세계-아라한·보살·붓다의 세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삼악도를 벗어나야 하고, 윤회세계 안에서의 상대적 행복도 넘어 해탈세계의 영원한 행복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해탈세계 중에서도 최고의 행복이 보장되는 궁극적 해탈계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6. 2000년간의 무아-윤회주체 논쟁을 마무리짓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에서는 2000년 이상 왜곡되어 온 부처님의 무아설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영혼체가 윤회의 주체라고 하는 영혼체윤회론을 선언하여 2000년 이상 불교계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왔던 무아와 윤회주체 문제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불교계에서는 부처님의 무아설을 잘못 해석하여 인간의 영혼체마저 없는 것으로 왜곡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윤회주체가 없어도 된다고거나 아니면 심식류(아뢰야식 등)를 윤회주체라고 하는 등 무아설과 윤회주체 문제를 양립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무아윤회론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잡아람경》(제일의공경)의 “업과 과보는 있는데 그 작자(주체는) 없다(有業報 無作者)”는 불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윤회의 주체(-작자)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무아윤회론은 인간의 보편적 상식에도 맞지 않지만 우주의 법에 반하는 이론입니다. 업을 짓는 주체와 그 과보를 받는 주체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 두 주체는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인과법의 기본 전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아윤회설은 윤회와 해탈이라는 불교의 기본교설을 뿌리째 흔들고 있고, 나아가 불보살의 존재를 부정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불교 자체를 부정하는 사실(那說)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7. 칭명염불만이 보살·붓다 될 수 있는 정통수행법이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에서는 부처님의 성호를 소리내어 부르는 칭명염불만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보살·붓다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정통수행법임을 밝힙니다. 부처님이 계시기에 칭명염불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남방 테라와다불교의 위빠사나 수행이나 북방불교의 참선수행, 티베트불교의 삼밀가지의 본존수행 등 자력 중심 수행으로는 윤회를 벗어나기도 지극히 어렵지만, 보살·붓다 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보살이 되려면 4중죄가 소멸되어야 하고, 원결염가와 천마 등의 마장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정도에 자기의 불신인 아기보살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자력으로 불가능하고 부처님의 가피로만 가능합니다. 칭명염불은 부처님의 가피를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수승한 수행법입니다.

칠기동같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칭명염불과 함께 닦아야 할 중요한 수행덕목은 정정 계행, 효행, 보살행, 보현행 등입니다.

8. 한국은 국운융창기를 맞고 세계는 보다 평화로워진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를 관통하고 있는 이념은 중생구제와 호국평화불교의 실현입니다. 호국불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불교사상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호국평화불교의 사상은 과거와는 수준이 다른 지구적 차원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과 국운융창을 기하며, 지구촌 인류의 민족간·국가간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우주적 불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지사의 춘천본사에 있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모신 대적광전, 다보탑과 석가탑은 바로 그런 불력의 구심체입니다.

두 분의 붓다가 출세하고 부처님이 와 계신 한국은 불력으로 국운융창기를 맞이하고 지구촌은 보다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공동저자 가섭존자 후신 광명 만덕 큰스님

- ▶ 1997년 불세존으로부터 공명화두 계승 받아 9월만에 화두타파 답습함
- ▶ 1997.11월 부처님을 진견하고 법문 들음
- ▶ 1998.9월 부처님으로부터 불호 광명불, 보살명 만덕으로 인가 받음
- ▶ 2000.5월 자재 만현 큰스님과 함께 현지사 창건

공동저자 아난존자 후신 자재 만현 큰스님

- ▶ 1960년 부산 선암사 석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통도사 경봉 큰스님 문하에서 화두참구. 10년 만에 화두 타파하고 공성증득
- ▶ 조계종 상임포교사, 대한불교신문 편집국장 역임
- ▶ 경전에서 붓다의 길을 발견하고 열반행자로 전환하여 30여년간 생사를 넘나드는 열불수행에 정진
- ▶ 2000.1월 부처님을 진견하고 불호 선해해제재통왕불 보살명 만현으로 인가 받음
- ▶ 2007.7 광명만덕 큰스님과 함께 영산불교를 개창하고 범부 전수받아 2대 교조 위임



현지사의 대적광전과 석가탑, 다보탑

3. 불교중흥의 신불교 정법시대가 열렸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구도는 초기불교(근본불교)를 거쳐 대승불교로 이어졌고 다시 21세기에 탄생한 신불교인 영산불교에 이르러 완성이 됩니다.

초기불교는 생천(生天)과 생사해탈(아라한) 중심의 가르침으로서 대승의 《열반경》에서는 이를 반자(半字-미완성)의 가르침이라고 부릅니다. 경전으로 보면 《아함경》의 가르침입니다. 초기불교 교설의 특징은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라는 점과 3법인, 4성제·8정도, 12연기 등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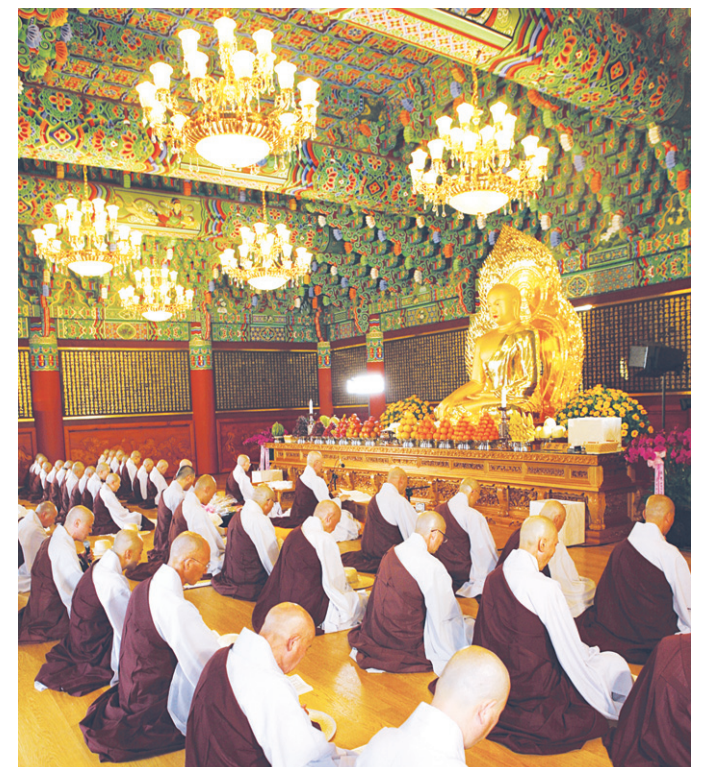
대승불교는 대승경전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대승경전은 부처님 외의 다른 붓다의 화신들이 쓴 것으로 한 차원 높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전상으로는 불보살의 실존을 증언하고 있으나 현실 불교계에서는 이런 대승경전의 가르침을 수용하지 못하여 왜곡되고 종파화된 현재의 불교를 말합니다. 《열반경》에서 말하는 만자(滿字)의 가르침에 해당하지만 불완전한 만자(滿字)의

처님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새로운 경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우주만물과 인간탄생의 비밀을 밝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는 지금까지 어느 종교에서도 어느 누구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던 인간과 우주만물의 생성원리를 우주본체인 공(空)과 연기법, 우주의 순환법칙인 '생성(成)-유지(住)-파괴(壞)-공화(空)' 과정과 연계하여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이는 우주이치를 통달한 붓다의 견지에서 이룩한 철학적 존재론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힌두교 베단타학파의 가현설(불이 일원론)이나 상키아학파의 이원론, 그리고 도가의 우주론인 도일원론, 유교의 기일원론이나 이일원론의 주장을 차원면에서 논리적으로 압도하는 진리입니다. 특히, 공은 비인격적 자존자임을 강조하면서 공의 실체와 속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일신교의 창조설을 배격



대적광전에서 경전을 읽는 스님들

■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메일 hyunjigun@hanmail.net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 ☎ 033-243-1787
- 부산본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1439-2이센타워 15층,14층 ☎ 051-554-5150
- 대전본원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14-39 ☎ 042-525-5325
- 고성본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195-2 ☎ 033-681-5515
- 서울본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1동 630-41 ☎ 02-453-5953
- 대구본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50-13 ☎ 053-654-5557
- 제주본원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16 ☎ 064-783-5355
- 일본본원 일본국 아미구치켄 이와쿠니시 히라타 ☎ 0827-34-1626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14-39 ☎ 042-525-5325